



# 2024년 미국 대통령·의회선거 분석

송정민·허석재·송진미

## 요약

- 01 I. 서론
- 01 II. 2024년 미국 선거 결과
- 06 III. 선거쟁점과 유권자의 투표선택 결정 요인
- 16 IV. 미국 신행정부의 운영 방향과 내각 구성
- 23 V. 요약 및 함의

-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선거인단 312표를 획득하여 당선되었으며, 일반 유권자 득표에서도 230만표 가량 앞서며 승리함**
  -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여 ‘완승’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과거 선거 사례와 비교하여 집권당의 확보의석 수는 매우 적은 수준임
- **선거에서 경제와 이민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는데,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 등 경제 문제가 정부 심판으로 작용했음**
  - 시민권·민주주의·낙태 등의 이슈는 상대적으로 덜 부각됨
- **공화당이 전통적 백인 중상층 지지기반 외에 유색인종·저학력층으로 지지를 확대하며 균열구조의 재정렬 가능성이 제기됨**
  - 트럼프 후보는 4년 전에 비해 흑인 남성 12.4%p, 18-44세 유색인종 10.6%p, 히스패닉 7.6%p 등 지지율이 상승함
  - 공화당의 ‘다인종 노동계급 연합’ 구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시적 현상일 수 있으며 구조적 전환 여부는 불확실함
- **신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의 기조 하에 정책 전환이 예고되며, 내각 구성에서도 트럼프와 견해를 같이하는 인사들이 중용됨**
  - 국경봉쇄·이민자 추방, 관세부과,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정책 등의 추진이 예상됨
  - 그럼에도 집권당 의석수의 부족은 대통령 의제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I. 서론

2024년 11월 5일 미국 연방선거가 치러졌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개표를 통한 당선인 확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으나, 선거일 하루 만에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선거인단 과반을 확보하여 당선되었다. 초경합이라는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가 보기 좋게 빛나갔다. 공화당은 상·하원선거에서도 다수를 차지하여 소위 '완승'(trifecta)을 거두었다.

1992년 이후 30여 년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은 2004년을 제외하고 일반 유권자 득표(popular vote)에서 모두 승리하였다.<sup>1)</sup> 그럼에도 승자독식의 선거인단 제도로 인해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미국 사회의 불평등 확대와 인종구성의 변화에 따라 백인 중상층 중심의 연합에 의지해 온 공화당에서는 위기의식이 만연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압승으로 인해 미국 선거의 지형이 바뀌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다른 한편, 의회선거의 최종 결과는 2024년 12월 3일에야 확정되었는데, 공화당의 하원의석수는 중전보다 줄었다. 집권당의 하원의석률은 지난 100여 년 만에 최소 수준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로 인해 트럼프 당선인의 국정 의제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이번 미국 연방선거 결과를 분석하고, 선거과정에서 양당 후보자가 제시한 주요 공약과 쟁점을 살펴본 뒤,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탐색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행정부 및 의회의 운영방향을 정책과 인사의 측면에서 개관한다.

## II. 2024년 미국 선거 결과

### 1. 투표율

이번 선거의 투표율(VEP: Voting-Eligible population Turnout)<sup>2)</sup>은 개표가 99% 진행된 2024년 11월 30일(미국 현지시각) 기준 63.86%으로 집계되었다.<sup>3)</sup> 이는 |그림1|에서 보듯이 역대 대선 가운데 매우 높은 수준이면서도 지난 100년간 최고를 기록한 2020년보다는 3%포인트 가량 하락한 것이다. 이와 같이 높은 투표율에도 트럼프 후보가 압승을 거둠에 따라 투표율 상승이 민주당에 이롭다는 속설이 깨졌다.<sup>4)</sup> 2020년 선거 당시 이

1)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한 2004년 대선은 9.11 테러에 대응하여 이라크 전을 개전한 상태였다.

2) 투표율 측정을 위해 투표권 연령을 기준(VAP: Voting-Age Population Turnout)으로 삼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선거권이 없는 영주권자 및 전과자 등을 제외한 VEP 지표를 많이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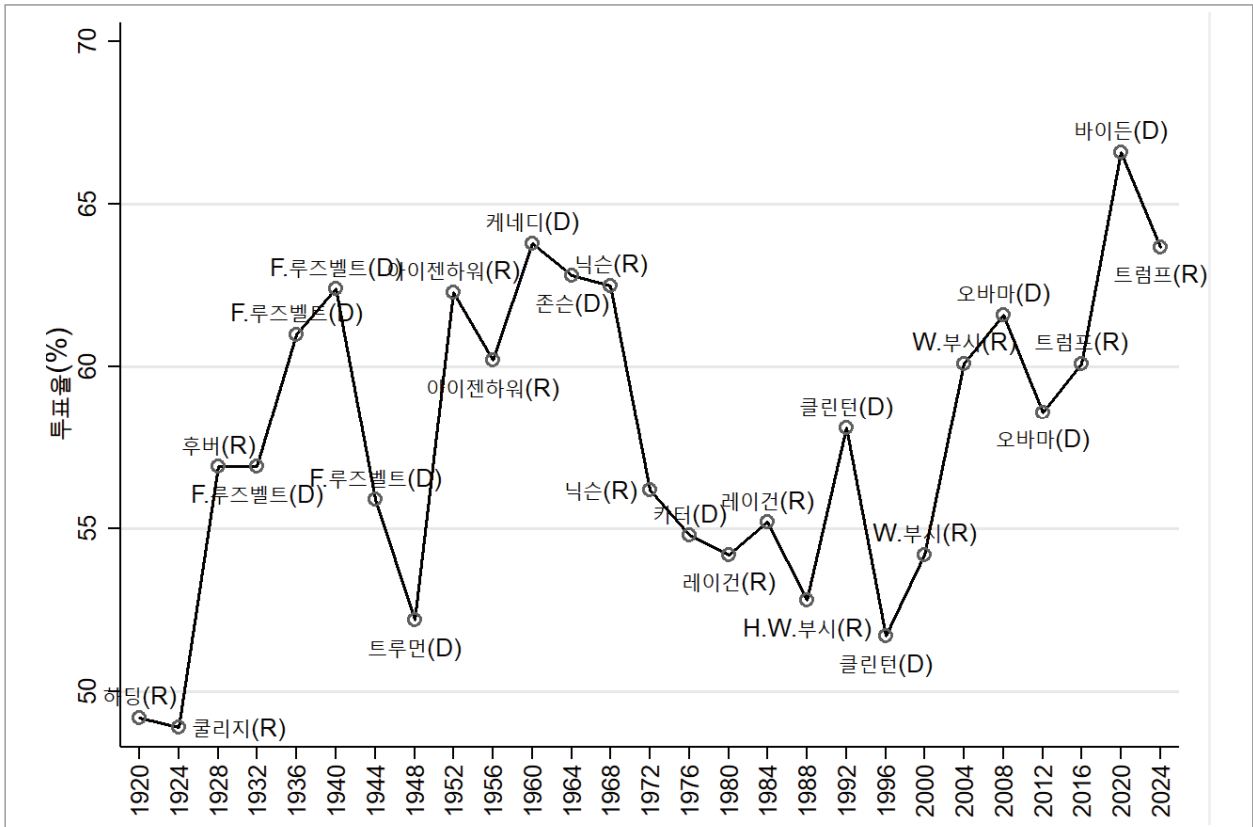
3) 플로리다대 선거연구실(Election Lab), (최종 검색일: 2024. 12. 3), <<https://election.lab.ufl.edu/2024-general-election-turnout/>>.

4) Nicholas Riccardi, "Big voter turnout this year benefited Republicans, contradicting conventional political wisdom," *AP News*,

례적으로 높았던 투표율로 인해 패배한 트럼프 측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고, 공화당이 강세인 주에서는 투표참여를 까다롭게 하는 입법에 나서기도 하였다. 반면,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에서는 코로나19 시기에 전면적으로 허용되었던 우편투표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했다.<sup>5)</sup> 이번 공화당의 선거 승리로 인해 이러한 대립구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번 선거 승패를 가를 경합주(swing states)로 꼽힌 위스콘신·미시간·펜실베이니아·네바다·애리조나·노스캐롤라이나·조지아 등의 투표율은 2020년과 비슷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 성향이 높은 디트로이트(미시간 주), 필라델피아(펜실베이니아 주) 등 도시지역의 투표율이 4년 전에 비해 낮아졌고, 이는 민주당 해리스 후보의 패배에 영향을 미쳤다.

| 그림 1 | 미국 역대 연방선거 투표율 추이(1920-2024년)



※ 자료: 미국선거 프로젝트, (최종 검색일: 2024. 11. 18.), <<https://www.electproject.org/national-1789-present>>. 2024년은 플로리다대 선거연구실, (최종 검색일: 2024. 11. 30.), <<https://election.lab.ufl.edu/2024-general-election-turnout/>>

Nov. 18,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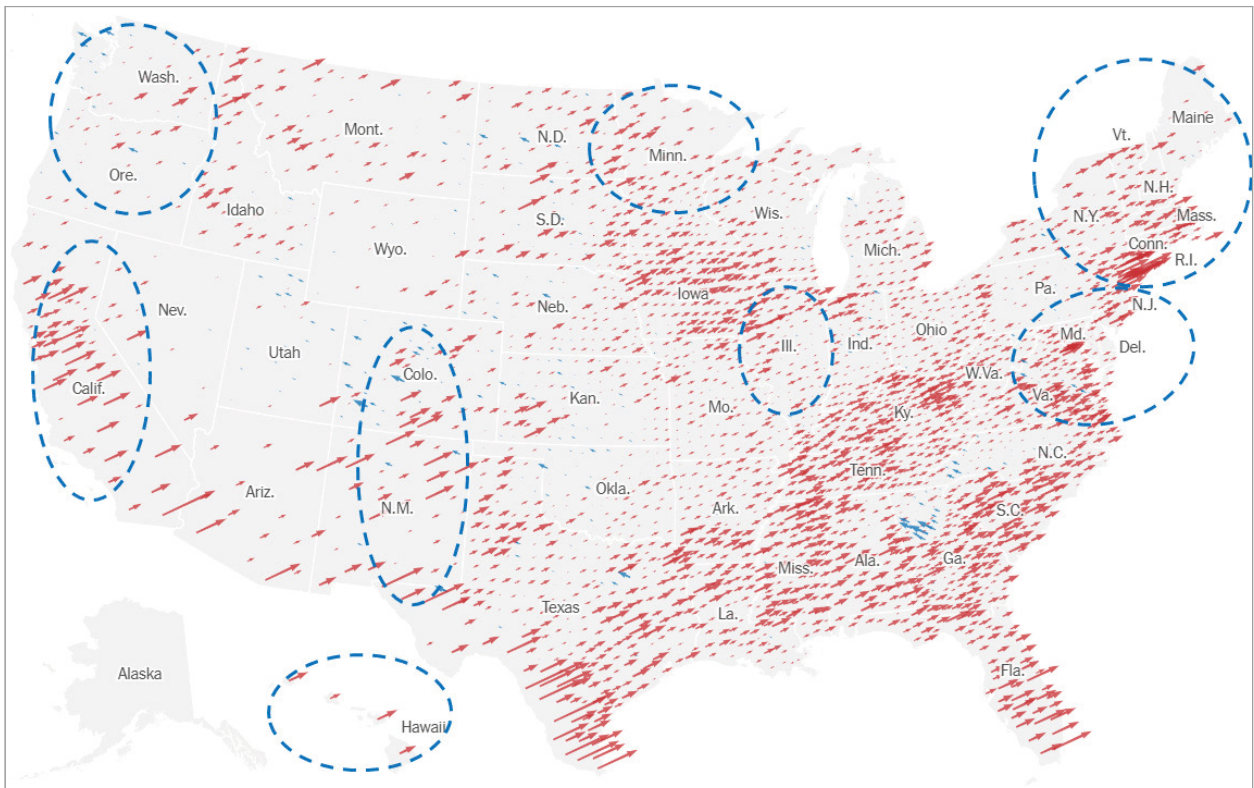
5) 캘리포니아주는 코로나19 시기 시범적으로 도입한 전체 우편투표를 제도화하여 이번 선거에서 선거인 모두에게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했다. 우편 투표는 11월 5일 이전 소인이 있고 선거일 후 7일 이내 도착하면 유효하다. 우편투표 상의 서명이 공식 기록과 다르면, 선거당국은 해당 선거인과 접촉하여 확인 절차를 거치고, 12월 1일까지 수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개표완료까지 한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 (최종 검색일: 2024. 11. 18.),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24/11/18/california-election-ballot-counting-delay/>>.

## 2. 대통령선거 결과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 후보는 선거인단 투표 312표, 해리스 후보는 226표를 확보했다. 과거 선거인단 투표에서 공화당 후보가 승리한 경우에도 전체 선거인 득표 수는 적었던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트럼프가 해리스 후보에 비해 230만표 가량 더 득표하여 선거인단 투표뿐 아니라 선거인 투표에서도 승리했다. 2016년 트럼프가 처음 당선될 당시 민주당 클린턴 후보에 비해 290만표 가량 적게 득표했고, 2020년에는 바이든 후보에 비해 700만표 차이로 패배한 바 있다.

카운티 단위로 4년 전 대선과 비교하여 양당 대선 후보의 득표율 증감을 보여주는 |그림 2|를 보면, 전국적으로 트럼프의 득표율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메사추세츠, 코네티컷, 뉴욕, 버몬트, 로드아일랜드, 메릴랜드, 델라웨어, 버지니아 등 북동부 지역이나, 중부의 일리노이, 북부의 미네소타 등 해리스 후보가 승리한 지역에서도 4년 전에 비해 트럼프의 득표가 상당히 늘어났다.

|그림 2 | 2020년 대비 2024년 대선 양당 후보자 득표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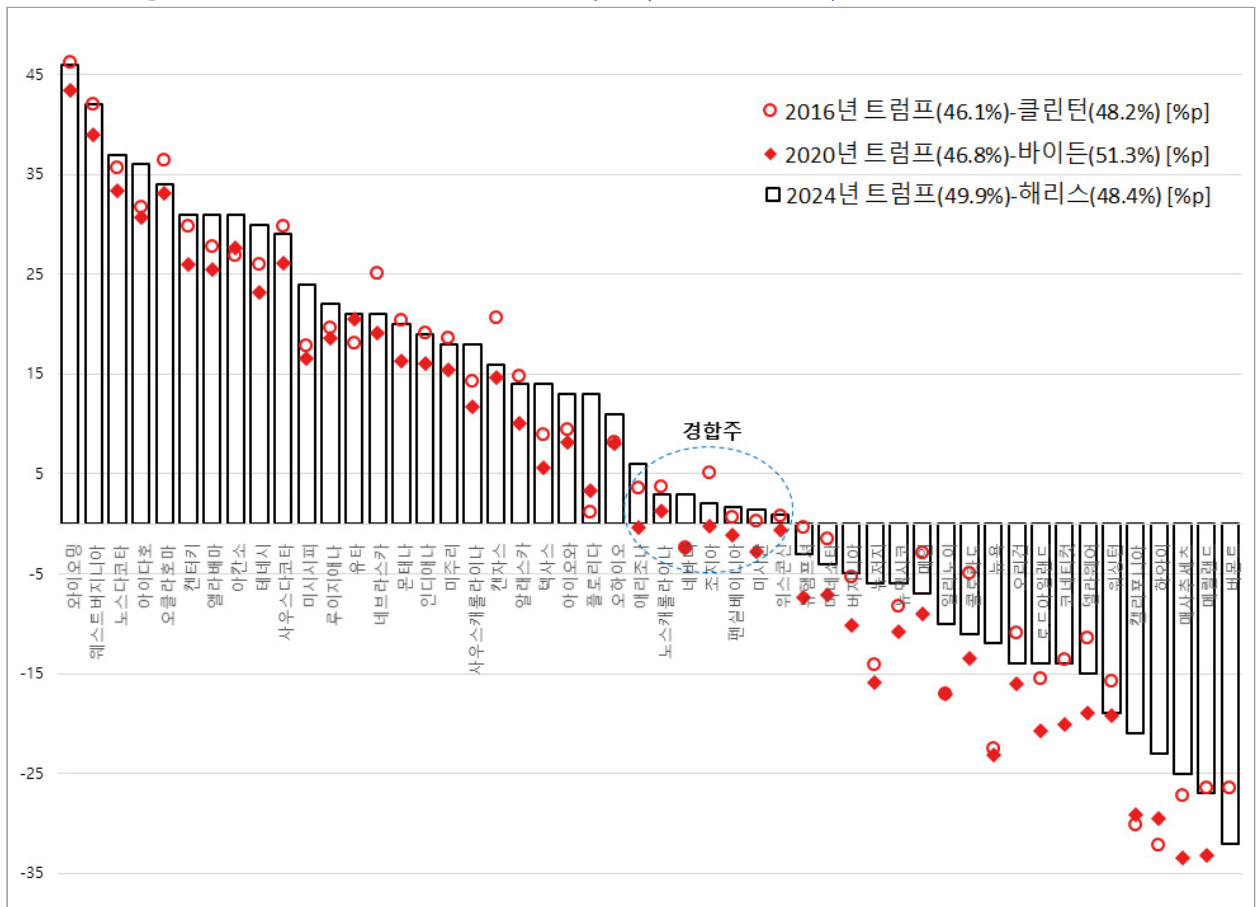
※ 주: 빨간 화살표는 공화당 후보자의 득표율 증가를, 파란 화살표는 민주당 후보자의 득표율 증가를 나타내며, 화살의 길이는 득표율 증가분을 표시함. 파란 점선은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승리한 주임

※ 자료: 뉴욕타임스, (최종 검색일: 2024. 12. 6),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4/11/05/us/elections/results-president.html>>.



이제까지 트럼프가 치른 세 번의 대선에 대해 주별 득표율을 비교해 보더라도 이번 선거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그림 3|은 각 선거 당시 트럼프의 득표율에서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을 뺀 값을 보여준다. 대다수의 주에서 트럼프의 득표율은 종전보다 상승했다. 상당수의 승리한 주에서 득표율 격차를 늘렸고, 패한 주들 가운데도 득표율 차이를 줄인 곳이 많았다. 특히, 그림의 중간에 위치한 경합주(파란 점선)에서의 승리가 대선 승패를 갈랐다. 애리조나부터 위스콘신까지 모든 경합주에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했다.

| 그림 3 | 상대 후보 대비 트럼프 후보 득표율 격차(주별, 2016-2024년)



※ 주: 컬럼비아특별구(D.C.)는 양당 득표차가 너무 크므로 효율적인 시각화를 위해 제외함(세 선거 모두 87%p차 정도 격차임).  
 ※ 자료: 연방선거위원회(Federal Election Commission), 2024년은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 2024. 12. 3. 현재(개표율 99%)

### 3. 연방의회선거 결과

이번 선거는 대통령만이 아니라 제119대 의회의원을 선출하는 동시선거였다. 상원의원선거에서는 2024년 11월 21일 펜실베이니아의 3선 현역의원인 케이시(Bob Casey)가 공화당의 맥코믹(David McCormick)에게 패배하면서 최종적으로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으로 결정

되었다. 민주당 내 보수파인 케이스는 현직자 프리미엄이 가장 큰 후보로 평가되었지만, 0.2% 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다.

하원의원선거는 2024년 12월 3일 캘리포니아 13구에서 민주당 소속 전(前) 하원의원인 그레이(Adam Gray)가 공화당 소속 현역의원 두아르테(John Duarte)를 190여 표 차로 꺾으면서 양당의 확보 의석 수가 최종 확정되었다. 공화당은 220석, 민주당은 215석이다. 이로써 공화당은 다수당 지위를 확보했지만, 2년 전 선거에 비해 2석이 줄어든 결과이다.

공화당이 대통령과 상·하원의원선거를 석권하면서 ‘완승’(trifecta)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이 동일한 단점정부(unified government)가 구성됐지만, 이는 드문 일 이 아니거니와, 전례와 비교하여 다수당의 확보의석은 매우 적은 수준이다. 하원의 경우, 다수 당 대비 소수당의 의석을 차(margin)는 1.15%포인트에 그쳐 제65대 의회(1917-1919) 선거 이후 최소 기록이다.<sup>6)</sup> 지난 30년의 선거 간에 비교해 보면 클린턴 대통령 당선 당시 하원의원 선거에서 여당의 의석 우위는 82석에 달했고, W. 부시는 7석, 오바마는 79석이었다. 트럼프의 첫 당선 당시 공화당은 민주당보다 하원의석 47석을 더 많이 확보했다. 이에 비해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의 의석우위는 5석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도 트럼프 당선인이 하원의원 당선인 가운데 3인(스터파닉(Elise Stefanik), 왈츠(Michael Waltz), 게이츠(Matt Gaetz))을 내각에 기용 하면서 3석이 공석이 되어 실제로는 ‘공화당 217석 대 민주당 215석’의 의회가 당분간 운영될 전망이다.<sup>7)</sup> 의안 표결에 있어서 민주당의 이탈표가 없다면 공화당에서 1명이라도 이탈하면 통과가 어렵게 된다. 수개월 내 치러질 보궐선거에서 왈츠와 게이츠의 지역구인 플로리다는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스테파닉의 뉴욕 지역구는 민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상원의 경우, 2016년 트럼프의 첫 집권 당시 공화당은 52석이었는데, 이번에 53석을 확보하게 되었다. 2016년 당시 상원에는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매케인(John McCain), 롬니(Mitt Romney) 등 중량감있고, 트럼프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인물들이 포진해 있었으나, 지금은 트럼프의 공화당에 대한 장악력이 제고되어 인사와 입법에 있어서 협조를 끌어내기 쉬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11월 13일 트럼프와 거리를 뒀던 툰(John Thune) 의원이 친트럼프 후보들을 누르고 상원 원내대표로 선출되어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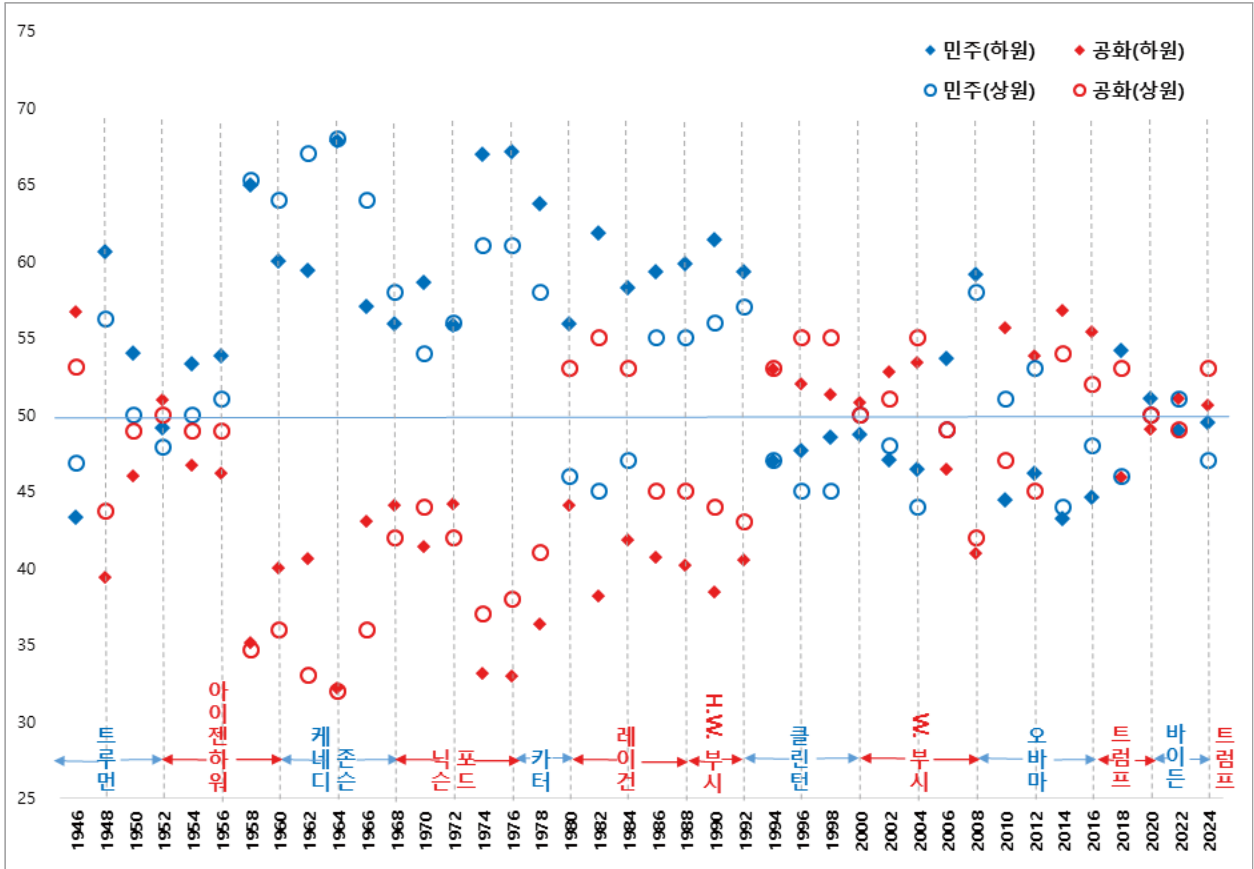
6) 제65대 의회선거에서 다수당이었던 민주당 및 친민주당 무소속 의원의 의석을 우위는 0.46%포인트였다. Drew DeSilver, "Narrow majorities in U.S. House have become more common but haven't always led to gridlock," Pew Research Center, May 5, 2023.

7) 게이츠 법무장관 후보자는 여러 논란으로 자진사퇴하였으나, 지명과 함께 의원직 사퇴를 하여 공석이 되었다. Aaron Blake, "Trump and the GOP will have a historically tiny House majority. What that means." *The Washington Post*, Dec. 4, 2024.

8) 트럼프 당선인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게이츠의 사퇴도 상원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Lauren Fedor, Stefania Palma and James Politi, "Gaetz failure suggests Senate Republicans may resist Trump extremes," *Financial Times*, Nov. 23, 2024.

| 그림 4 | 미국 역대 연방의회 정당별 의석

(상원은 의석수, 하원은 %)



※ 주: 점선은 대통령과 의회의 동시선거이고, 점선이 없는 해는 중간선거(mid-term election)임.

※ 자료: 브루킹스 연구소, (최종 검색일: 2024. 11. 18.), <<https://www.brookings.edu/articles/vital-statistics-on-congress/>>, 뉴욕타임스, (최종 검색일: 2024. 12. 4.),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4/11/05/us/elections/results-senate.html>>.

### III. 선거쟁점과 유권자의 투표선택 결정 요인

#### 1. 주요 이슈와 정당별 공약

2024년 미국 선거에서 전반적으로 중요했던 정책 이슈는 경제, 이민 문제 등이었다.<sup>9)</sup> 다만, 대선후보로 누굴 지지하는지에 따라 이슈 중요도가 조금씩 달랐는데, 퓨리서치에 따르면,<sup>10)</sup>

9) Carroll Doherty, Jocelyn Kiley, and Nida Asheer, *In Tied Presidential Race, Harris and Trump Have Contrasting Strengths, Weaknesses*, Pew Research Center, 2024, p.15; Megan Brenan, "Economy: Most Important Issue to 2024 Presidential Vote," Gallup News, Oct. 9, 2024. <<https://news.gallup.com/poll/651719/economy-important-issue-2024-presidential-vote.aspx>>(최종 검색일: 2024. 11.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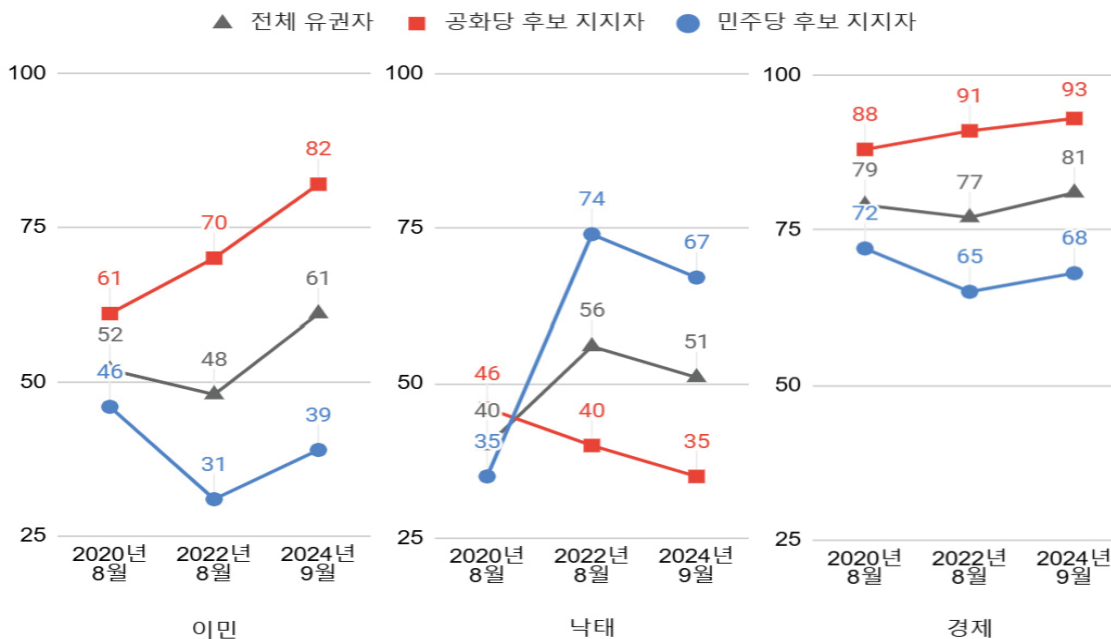
10)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는 2024년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등록 유권자 8,044명을 포함한 성인 9,7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설문조사는 온라인 또는 전화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성별, 인종, 교육수준 등 요인들을 고려하여 성인 인구를 대표할 수 있도록 가중치가 부여되었다(Doherty, Carroll, et al., 앞의 책). 본 보고서에서 인용한 수치는 등록 유권자 응답자를 대상으로 통계를 낸 것이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경제, 이민, 치안/범죄(violent crime) 등의 이슈가 중요했고, 해리스 지지자들은 의료보장(health care), 대법관 임명 문제, 경제, 낙태 등의 이슈가 중요했다. 갤럽의 조사결과도 이와 비슷한데,<sup>11)</sup> 공화당 지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위 이슈는 경제, 이민, 테러리즘과 국가안보, 범죄, 세금이지만, 민주당 지지자는 미국의 민주주의, 대법관 인선 방향(Types of Supreme Court justices candidates would pick), 낙태, 의료보장, 교육이 중요한 이슈였다.<sup>12)</sup>

경제는 후보 지지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었지만 지난 선거에서부터 꾸준히 중요한 이슈였다.<sup>13)</sup> 이번 대선에서는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 이민, 낙태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그림 5|는 지지 후보에 따른 주요 이슈를 보여주는데, 2024년 선거에서 트럼프 지지자의 82%가 이민 문제가 투표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2020년 선거 때의 61%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 지지자 간 비율의 차이가 2020년 선거에서는 15%포인트였으나, 2024년 선거에서는 43%포인트로 증가했다.

|그림 5| 지지 후보에 따른 주요 이슈



주: 등록 유권자 기준. 2020년과 2024년의 후보자 지지자는 대선 기준이며, 2022년의 후보자 지지자는 의회 선거 기준임  
출처: Doherty, et al., 앞의 책, p.17.

11) 갤럽(Gallup)은 2024년 9월 16일부터 28일까지 등록 유권자 941명을 포함한 18세 이상 성인 1,0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으며, 조사는 전화로 진행되었고, 성별, 연령, 인종, 교육, 지역 등이 국가 인구통계와 일치하도록 가중치가 부여되었다(Gallup. *2024 Presidential Election on Fall Benchmark - Final Topline*, 2024). 본 보고서에서 인용한 수치는 등록 유권자 응답자를 대상으로 통계를 낸 것이다.

12) 여기서 지지자는 무당파 중 약한 정당 지지자(leaning independent voters)도 포함한다.

13) Carroll Doherty, Jocelyn Kiley, Nida Asheer, Calvin Jordan, *Election 2020: Voters Are Highly Engaged, but Nearly Half Expect To Have Difficulties Voting*, Pew Research Center, 2020.

반대로 낙태 이슈의 경우에는 2024년 선거에서 해리스 지지자들의 중요도가 높았는데, 지지자 중 67%가 낙태 이슈가 투표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트럼프 지지자 중 같은 응답의 비율은 35%에 불과했다. 두 지지자 간 응답 비율의 차이는 32%포인트였으며, 2020년 선거 당시 양 당 지지자 간 큰 차이가 없었던 것과 비교할 때 이번 선거에서 이슈 중요도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정당은 전당대회에서 공약 등을 담은 정강정책(party platform)을 발표한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바이든의 후보 사퇴가 정강정책의 통과 및 공개 시기와 겹쳤다.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2024년 8월 18일에 정강정책 최종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7월 16일 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이였다. 즉,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하기 전에 정강정책이 통과되었고 사퇴한 이후에 발표된 것이다.<sup>14)</sup>

민주당 정강정책의 분량은 상당히 길어서 9개 장(chapter), 서문부터 마지막장까지 총 91쪽에 달한다. 내용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과 업적을 내세우고 이를 계승할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트럼프 후보에 대한 비판과 민주당 정책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 민주당의 정강정책은 길고 복잡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공약을 한눈에 파악하기 다소 어렵고, 바이든 행정부의 업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기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어받는 느낌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공화당의 정강정책은 총 27쪽이며, 표지와 스텝명단 등을 뺀 분량은 16쪽으로 상대적으로 짧다. 정당이 추구하는 방향을 한 문장씩으로 이루어진 20개 항목으로 간결하게 전달한 뒤, 주요 공약을 10개 장으로 제시하고 있다. 각 장은 1~2쪽 분량으로 짧게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채워져 있다. 간결하게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나아갈 바를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유권자가 당선 이후의 정책을 구체화하여 유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가. 경제

공통적으로 중요한 이슈였던 경제에 대한 트럼프와 해리스의 공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민주당은 ‘아래로부터 그리고 중산층 중심으로의 경제 성장(Growing Our Economy from the Bottom Up & Middle Out)’을 정책기조로 제시하면서 낙수 경제 정책(trickle-down policies)의 대척점에 있음을 강조했다.<sup>15)</sup> 전체적으로 바이든 정부의 경

14)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DNC Releases 2024 Party Platform to be Voted on at Convention,” Aug. 18, 2024.

15)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24 Democratic Party Platform, 2024, pp.8-13.

제적 성과를 강조하며 인프라 확충,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중산층과 저소득층 중심의 경제운용,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와 복지 확대를 정책으로 제시했다.<sup>16)</sup> 공화당은 인플레이션 해소 및 물가 안정, 규제 완화와 포괄적 감세, 혁신 산업 육성 등을 강조했다. 전체적인 기조는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투자유치라고 할 수 있다.<sup>17)</sup>

해리스는 부자 증세와 중산층의 세금 감면을 주장한 반면, 트럼프는 모든 개인의 소득세 감면 확대,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해리스는 식품 및 식료품에 대한 가격 인상 금지, 신규 주택 구매자 지원, 주택공급 확대, 임대료를 낮추기 위한 정책 등을 주장했고, 트럼프는 석유와 가스 생산을 늘려 가격을 낮추고, 주택 공급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며,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여 주택 압박을 완화하겠다고 주장했다.<sup>18)</sup>

경제 정책 영역에서 두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를 살펴보면, 트럼프가 좀 더 신뢰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퓨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경제정책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후보로 트럼프를 신뢰하는 비율은 응답자의 55%였으나, 해리스는 45%로 더 낮았다.<sup>19)</sup> 갤럽의 조사에서도 두 후보 중 누가 경제를 더 잘 다룰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했을 때, 트럼프라고 응답한 비율이 54%, 해리스라고 응답한 비율은 45%였다.<sup>20)</sup>

## 나. 이민

이민에 대해 민주당은 ‘국경 보호 및 파손된 이민 시스템 개선’을 제목으로 포괄적 이민, 합법적 이민 경로 확대,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과 같은 바이든의 이민 정책을 이어받고 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민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민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의 확대를 주장하며, 한편으로는 불법 이민 억제, 인신매매 및 밀입국 범죄자들의 기소와 처벌, 불법 펜타닐 유통 단속 등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sup>21)</sup>

반면, 공화당은 이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화당은 ‘국경 봉쇄 및 이민자 유입 차단’을 주장하며, 국경 강화, 이민법 집행 강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프로그램 시행, 엄격한 입국 심사, 불법 체류 범죄자를 보호하는 도시(Sanctuary Cities)에 대한 연방 자금 삭감, 미국 노동자 우선의 합법 이민 시스템을 강조한다. 또한, 불법 입국 및 비자 초과 체류에 대

16) 황선주, 「2024년 美대선,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비교」, 『이슈와 논점』 제2281호, 2024.

17)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The 2024 Republican Platform Make America Great Again!*, 2024, pp.11-22.

18) Tami Luhby, and Katie Lobosco, “Here’s what Harris and Trump are proposing for the economy,” *CNN*, Oct. 28, 2024; Tom Geoghegan, “What would Harris and Trump do in power?,” *BBC*, Nov. 3, 2024.

19) Doherty, et al., 2024, 앞의 책, p.19.

20) Megan Brennan, “Economy: Most Important Issue to 2024 Presidential Vote,” *Gallup*, Oct. 9, 2024.

21)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앞의 책, pp.54-71.

한 차별 강화, 불법 이민자 송환, 미국 입국 시 심사 강화 등 강경한 이민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이 중 「적성국국민법」(Alien Enemies Act)을 활용하여 갱단원, 마약 밀매자, 카르텔 조직원으로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인물을 모두 추방하여 불법 이민 갱단 폭력을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내용과 여행 금지 조치 재도입 등도 포함되어 있다.<sup>22)</sup> 「적성국국민법」은 미국이 전쟁 중이거나 침략이나 위협을 받을 경우 대통령이 적용할 수 있는 법으로, 적대적인 국가 출신으로 14세 이상의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은 외국인 적대자로 간주하여 체포, 구속, 구금 및 추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sup>23)</sup>

이민자 문제와 관련하여 민주당의 인도주의에 기반한 온건하고 포괄적인 이민 정책과 공화당의 강경주의에 기반한 불법이민자 추방과 국경 보안 강화가 대립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해리스의 입장은 이전에 비교해 진보보다는 중도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sup>24)</sup> 해리스는 2020년 선거 때보다 개방적인 이민 정책에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sup>25)</sup> 시민권 취득 경로 마련과 국경 안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강조하고 무허가 국경 통과는 불법이라고 강조하며 국경 횡단이 많을 때 대통령의 국경 봉쇄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등록 이민자의 임시 입국을 허용하고 시민권 취득 경로의 개혁도 주장했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대규모로 미등록 이민자를 추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추방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가족 분리 정책을 복원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sup>26)</sup>

이민 정책은 후보 지지에 따라 의견이 나뉘었다. 먼저 전체 유권자를 살펴보면 대체로 트럼프가 좀 더 신뢰받거나 유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정책에 대해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트럼프를 신뢰하는 비율은 52%였으며, 해리스는 45%였다.<sup>27)</sup> 이민 정책을 더 잘 다룰 것으로 생각되는 후보에 대해서는 54%가 트럼프, 45%가 해리스를 선택했다.<sup>28)</sup>

지지자별로 살펴보면,<sup>29)</sup> 트럼프 지지자는 이민자 수가 증가하면 삶이 더 나빠질 것이라

22)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앞의 책, pp.2-13.

23) Catherine E. Shoichet, "A little-known law from 1798 could be a key part of Trump's deportation plans," *CNN*, Nov. 14, 2024.

24) Lauren Gambino, "Where do Harris and Trump stand on the key election issues?," *The Guardian*, Nov. 3, 2024.

25) Melissa Quinn, Caitlin Yilek, Caroline Linton, Kaia Hubbard, Kathryn Watson, Mary Cunningham, and Aimee Picchi, "Kamala Harris' policy plans and platform on key issues for the 2024 election," *CBS NEWS*, Nov. 5, 2024.

26) Maria Sacchetti, Anthony J. Rivera, Abbie Cheeseman, and Justine McDaniel. "Harris vs. Trump on immigration: Where they stand on the issue," *The Washington Post*, Sep. 10, 2024.

27) Doherty, et al., 2024, 앞의 책, p.19.

28) Megan Brennan, "Economy: Most Important Issue to 2024 Presidential Vote," Gallup, Oct. 9, 2024.

29) Sahana Mukherjee, and Jens Manuel Krogstad, "Trump and Harris Supporters Differ on Mass Deportations but Favor Border Security, High-Skilled Immigration," Pew Research Center, Sep. 27, 2024.



는 응답이 59%,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36%였으나, 해리스 지지자는 각각 11%, 65%였다. 트럼프 지지자 중 88%가 불법 이민자의 대량 추방을 지지하는 반면, 해리스 지지자는 27%만이 지지했다. 미국 시민과 결혼한 경우 미등록 이민자가 미국에서 살고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 지지자의 37%만이 찬성했지만, 해리스 지지자 중에서는 80%가 찬성했다. 다만, 두 지지자가 비슷한 의견을 보이는 부분도 있었는데, 국경 안보 강화와 고숙련/전문직 이민자(high-skilled immigrants)의 수용은 두 지지자 모두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 다. 문화적 이슈: 낙태, 젠더와 성정체성

이번 선거에서 두 후보 지지자 간 의견 차이가 크게 나타났던 분야 중 하나는 문화적 이슈였다. 공화당은 2024년 정강정책<sup>30)</sup>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 급진적 성 이데올로기 등의 내용을 가르치는 학교에 대한 연방 자금 삭감,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 금지, 무기 소지 권리를 포함한 근본적 자유의 수호 등을 약속했다. 결혼과 가정을 중시하고, 후기 낙태(late term abortion)를 반대하며, 성전환 수술에 대한 세금 지원을 금지할 것이라고 공약을 제시했다. 아울러, 트럼프와 공화당은 광고 캠페인을 통해 교도소와 구치소에서의 트랜스젠더 의료 서비스를 중단하고, 트랜스젠더의 스포츠 참여 등을 제한하는 등 반트랜스젠더 입장을 강조하고,<sup>31)</sup>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 조치 부활, 미성년자에 대한 성확정 의료서비스(gender-affirming care) 중단을 주장했다.<sup>32)</sup>

반면, 민주당은 성소수자, 총기, 낙태권 등의 문제에 대해 진보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sup>33)</sup> 피임, 체외수정 접근권 보호, FDA 승인을 통한 낙태약에 대한 접근성 제고 지원 등 출산과 여성 권리에 관해 진보적인 입장을 보였고, 성폭력, 가정폭력, 온라인 학대, 그리고 모든 형태의 여성에 대한 폭력 종식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성소수자 정책에 대해서도 진보적인 방향을 유지했다. 성소수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범죄 수사를 우선시하고 신고를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총기에 대해서는 안전한 보관 요구, 총기 종류와 소유에 대한 규제 등을 공약했다.<sup>34)</sup> 해리스는 성소수자 문제에 오랫동안 진보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며, 성소수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평등법」(Equality Act)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부통령으로서 동성 및 인종 간 결혼을 보호하는 「결혼존중법」(Respect for Marriage Act)을 지지한 바 있다.<sup>35)</sup>

30)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앞의 책, pp.1-19.

31) Kiara Alfonseca, "Election fact check: Trump, Harris on transgender issues," *ABC News*, Nov. 1, 2024.

32) ABC News, "Here's where the 2024 presidential candidates stand on LGBTQ+ issues," Sep. 6, 2024.

33) 황선주, 앞의 글.

34)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앞의 책, pp.39-57.



다만,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이슈 중요도에 있어서 트랜스젠더 권리(Transgender rights)의 순위는 상당히 낮았다.<sup>36)</sup> 투표에서 경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2%였으나, 트랜스젠더 권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했으며,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도 20%에 머물렀다. 정당 지지자별로 나누어 살펴볼 때도, 민주당 지지자들의 25%만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공화당 지지자는 12%만 동일한 의견이었다.

|그림 51에서 볼 수 있듯이 낙태는 민주당 후보 지지자 사이에서 중요한 이슈이다. 낙태에 대해서는 해리스가 트럼프에 비해 더 신뢰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 정책에 대해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에 해리스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55%였던 반면, 트럼프는 44%였다.<sup>37)</sup> 낙태 정책을 더 잘 다룰 것으로 생각되는 후보는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해리스라고 응답한 비율이 56%, 트럼프는 40%였다. 총기 정책에 대해서는 트럼프를 선택한 비율이 49%, 해리스는 49%로 차이가 없었다.<sup>38)</sup>

## 2. 유권자의 투표선택

### 가. 경제투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가 중요하게 인식하는 쟁점은 경제분야였고, 그 가운데서도 인플레이션과 물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선거 직전인 2024년 10월 22일 유고브(YouGov)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인플레이션(Inflation/prices)이 24.6%, 이민(Immigration)이 14.5%를 차지한 반면, 시민권(Civil rights and civil liberty)은 7.6%에 머물렀다(|그림 6|). 트럼프의 등장과 함께 점화된 민주주의나 낙태를 포함한 시민권 등의 이슈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받은 대신에 이민에 대한 관심은 크게 상승했다.

지난 15년간 미국인이 꼽은 가장 중요한 이슈의 추세를 보면, ‘고용/경제’가 최우선 순위에 있었지만, 건강보험, 사회복지, 기후위기, 시민권 등 다양한 이슈들이 부각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인플레이션과 물가에 대한 민감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미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재정을 풀어

35) ABC News, 앞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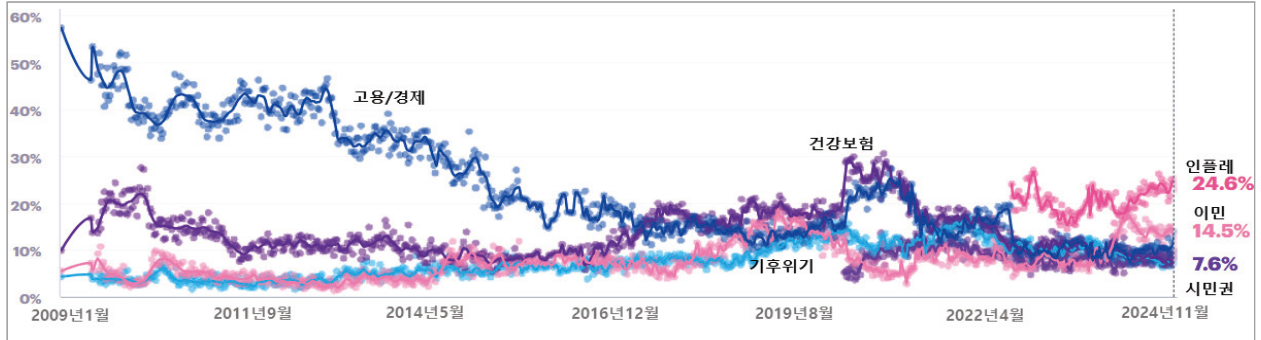
36) Brenan, 앞의 글.

37) Doherty, et al., 2024, 앞의 책, p.19.

38) Megan Brenan, “Economy Most Important Issue to 2024 Presidential Vote,” Gallup, Oct. 9, 2024.

유동성 공급에 나섬에 따라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2024년에 선거를 치른 영국, 벨기에, 포르투갈, 일본, 프랑스, 우루과이에서도 집권당은 득표율 하락을 경험했다.<sup>3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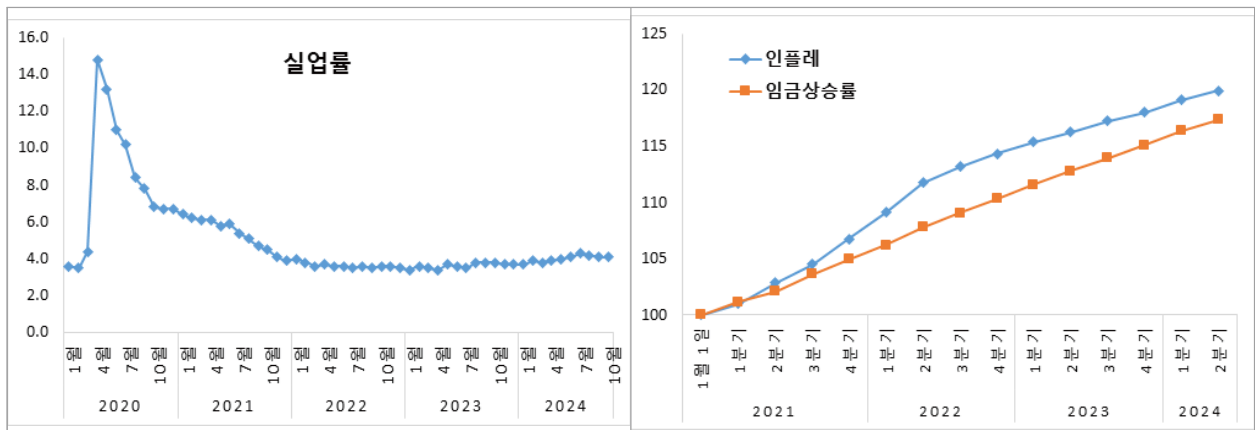
| 그림 6 | 미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이슈



※ 주: 다음 질문에 대한 응답임. “Which of these is the most important issue for you?” 응답비율이 적은 항목은 배제함.  
 ※ 자료: 유고브(YouGov), (최종 검색일: 2024. 11. 25.), <<https://today.yougov.com/topics/politics/trackers/most-important-issues-facing-the-us>>.

사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실적은 지표상으로 보면 나쁘지 않았다. 경제성장률이 이전 정부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고, 2021년 취임한 이후 실업률은 꾸준히 낮게 유지되어 선진국 가운데서는 가장 양호한 편에 속했다. 문제는 코로나19 여파로 물가상승이 높았던 데 있었다. |그림 7의 오른쪽 도표에서 보듯이 임금상승률에 비해 인플레이션 증가가 더 가팔랐다. 이러한 물가상승은 아랍권의 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전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기인한 바 크지만,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확장적인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책임을 돌리기도 한다.<sup>40)</sup>

| 그림 7 | 미국의 실업률·인플레이션율 및 임금 상승률 추이



※ 주: 인플레이션과 임금상승률은 2021년 1월을 100으로 놓고 이에 대비한 값임.  
 ※ 자료: 실업률은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최종 검색일: 2024. 11. 18.), <<https://fred.stlouisfed.org/series/UNRATE>>. 인플레이션 및 임금상승률은뱅크레이트사 <<https://www.bankrate.com/banking/federal-reserve/wage-to-inflation-index/>>.

39) John Burn-Murdoch, “Democrats join 2024’s graveyard of incumbents,” *Financial Times*, Nov. 7, 2024.

40) Andrew Prokop, “Biden screwed up on inflation — badly,” *Vox*, Nov 19, 2024.

방송사 출구조사<sup>41)</sup>에 따르면 외교, 낙태, 이민, 민주주의 이외에 경제 분야에 관심을 가졌다는 사람이 31%에 이르고, 이들의 79%는 트럼프 후보자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해당 출구조사에서 가족의 재정상태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4년 전에 비해 26%포인트 늘었고, 좋아졌다는 응답은 17%포인트 늘었다. 2020년 선거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후보는 재정상태가 좋아졌다는 응답자의 72% 지지를 획득하였고, 이번에는 도전자로서 재정상태가 나빠졌다는 응답자로부터 81%의 지지를 얻었다.<sup>42)</sup>

## 나. 균열구조의 전환?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의 득표 확대로 인해 미국 정당 경쟁 구도의 지형이 바뀌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미국 선거정치는 인종 및 계층 균열에 따라 양당이 경쟁하는 구도인데, 이번에 공화당은 ‘다인종 노동계급 다수파’(multiracial working-class majority)를 구축했다는 평가다.<sup>43)</sup> 종전에 공화당은 농촌 및 교외 거주 백인 중상층 연합에 의지하고 있어, 불평등이 심화하고 인종 구성이 다양해지는 추세를 향후 선거의 위협으로 간주해 왔다.<sup>44)</sup> 주별 승자독식의 선거인단 제도로 인해 대선에서 종종 승리했으나, 지난 30여 년간 유권자 득표(popular vote)에서는 계속 밀리고 있어 위기감이 팽배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대부분의 인구집단에서 득표율이 상승했고, 특히 유색인종 저학력 집단과 젊은 층의 지지가 확대되어 크게 고무되었다. 이에 트럼프는 당선 확정 연설에서 ‘역사적 재정렬’(historic realignment)을 이뤘다고 자평했다.<sup>45)</sup>

미국정치에서 ‘재정렬’(realignment)은 기존의 정당 지지연합에 구조적인 전환이 일어나서 상당기간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대공황 와중에 치러진 1932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가 대승을 거두면서 도시거주자, 남부 및 서부, 고학력층, 노동조합원, 가톨릭 및 유대인, 흑인의 지지연합이 구축되어 장기간 지속되었다. 지금은 1970년대 시작된 재정렬이 진행 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sup>46)</sup> 노동계급 및 남부 거주자들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지지를 옮기는 반면, 고학력 상층과 북부지역이 민주당으로 이전하는 양상이다.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에 트럼프는 유색인종 32%의 지지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1976년 제랄드 포드 이후 공화당 후보로서 최고 득표율이다.<sup>47)</sup>

41) 전국선거조사협회(National Election Pool) 회원인 ABC, CBS, CNN, NBC 방송사가 Edison Research에 의뢰하여 실시한 것이다.

42) ABC 방송사 홈페이지 (최종 검색일: 2024. 11. 18.), <<https://abcnews.go.com/Elections/exit-polls-2020-us-presidential-election-results-analysis>>, <<https://abcnews.go.com/Elections/exit-polls-2024-us-presidential-election-results-analysis>>.

43) David Brooks, “Voters to Elites: Do You See Me Now?” *The New York Times*, Nov. 6, 2024.

44) Paul Harris, “Republicans fear long exile in the wilderness,” *The Guardian*, 26 Oct.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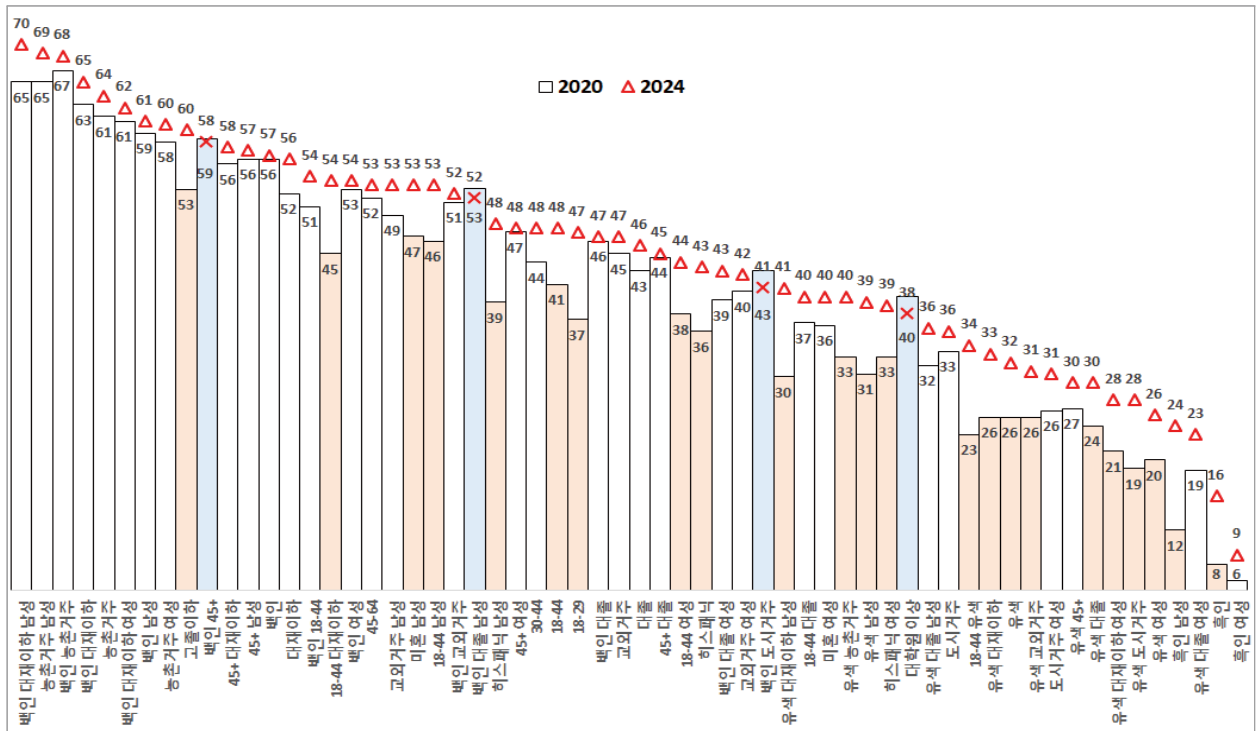
45) Flynn Nicholls, “Donald Trump’s Victory Speech in Full: Transcript,” *Newsweek*, Nov. 6, 2024.

46) John B. Judis and Ruy Teixeira, “Trump Called His Win a ‘Historic Realignment’ of U.S. Politics. We Have Our Doubts,” *The New York Times*, Nov. 13, 2024.

47) Darvio Morrow, “Trump Won With the Most Diverse GOP Coalition Since the Civil Rights Act,” *Newsweek*, Nov. 6, 2024.

|그림 8은 AP통신 등이 실시한 출구조사(AP VoteCast)<sup>48)</sup>를 통해 2020년 선거와 비교하여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의 득표율을 인구집단별로 보여준다. 트럼프 후보에 대해 가장 지지율이 높은 집단에서 낮은 순서로 정렬한 것인데, 하늘색 막대로 표시된 45세 이상 백인, 백인 대졸 남성, 백인 도시거주자, 대학원 이상 학력자 등을 제외하면 모든 집단에서 득표율이 상승했다. 분홍색 막대는 4년 전에 비해 5%포인트 이상 득표율이 상승한 집단이다. 흑인 남성이 12.4%포인트, 18-29세 집단은 10.3%포인트, 18-44세 유색인종이 10.6%포인트, 대학이하 학력 유색인종 남성이 10.5% 상승했다. 히스패닉 유권자 전체로 보면 7.6%포인트 상승했고, 고졸 이하 학력자들도 7.1%포인트 상승했다. 미국에서 대학 학력 소지 여부가 계층 분류의 기준이 되곤 하는데, 중하위계층의 지지가 많이 늘었다.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의 지지도 확대되었으며,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는 젊은 층의 지지가 높아져 공화당은 한껏 고무된 상태이다. 기존에 보유해 온 백인 교외 및 농촌 거주집단 및 저학력층의 기반 위에 약세였던 집단의 지지가 확장된바, 향후 선거구도를 뒤바꿀 새로운 연합(game-changing coalition)을 구축했다는 것이다.<sup>49)</sup>

| 그림 8 | 집단별 트럼프 후보 득표율 (2020년 대 2024년)



※ 주: 2024년 기준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음(2020년 대비 득표율이 줄어든 집단은 'X'로 표시함). 2024년에 2020년 대비 득표율이 5%포인트 이상 상승한 집단은 막대 그래프를 연한 붉은색으로, 득표율이 하락한 집단은 하늘색으로 처리함.

※ 자료: AP통신 출구조사 (최종 검색일: 2024. 11. 25.), <<https://apnews.com/projects/election-results-2024/votecast/>>.

48) 이 조사는 The Associated Press, Fox News, PBS NewsHour, The Wall Street Journal 등이 시카고대 전국여론조사센터(NORC)에 의뢰하여 조사한 것이다. (최종검색일: 2024. 11. 25.) <<https://apnews.com/projects/election-results-2024/votecast/>>.

49) Michael C. Bender, Katie Glueck, Ruth Igielnik, and Jennifer Medina, "In Trump's Win, G.O.P. Sees Signs of a Game-Changing New Coalition," *The New York Times*, Nov. 6, 2024. Yasmeen Abutaleb, Dan Keating, Sabrina Rodriguez and Josh Dawsey, "Trump coalition marks a transformed Republican Party," *The Washington Post*, Nov. 6, 2024.



이러한 전망에 대해 성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색인종 유권자층에서 민주당이 갖고 있던 우위가 줄어들었을 뿐이며, 생활 물가 상승과 현직 바이든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로 인한 일시적인 투표이동일 수 있다는 것이다.<sup>50)</sup>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는 히스패닉 유권자 43%의 지지를 얻어 지난 30년간 공화당 후보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했다. 남미에서 넘어오는 이민자들에 대해 적대적인 언사를 반복한 트럼프이기에 뜻밖의 결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대해 미국정치 전문가인 존 사이즈(John Sides)는 상당수의 히스패닉인들이 스스로를 유색인종보다는 ‘미국인’(American)으로 인식하며, 이들은 미등록 이민자와 흑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이 인종균열에 있어서 보수적인 태도는 공화당 후보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는데, 이는 점진적으로 진행된 미국 사회의 이념적 정렬(ideological sorting)의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sup>51)</sup>

## IV. 미국 신행정부의 운영 방향과 내각 구성

### 1. 미국 신행정부의 운영 방향

“미국 우선: 상식으로의 복귀”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공화당 정강정책의 서문은 단호한 리더십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개방 국경, 악화된 경제, 에너지 생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 소진된 군사력, 미국 사법 체계에 대한 공격 등을 미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심 문제로 언급하고 있다.<sup>52)</sup>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가지 약속을 아주 간결하게 제시하는데, 주요 내용은 국경 봉쇄와 이민자 추방, 제조업 강화, 지배적 에너지 생산국으로의 전환, 세금 감면, 군사력 강화 등이다. 국방·외교·통상정책에 있어서도 자국 우선주의, 힘에 의한 평화 구축이 강조되고 있다.<sup>53)</sup>

‘미국 우선주의’의 정책 기조는 다음과 같이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국방·외교·통상 분야에서 중국 견제와 자국 산업 보호, 국익 위주 외교정책 목표를 우선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자는 인플레이션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선과 함께 이미 중국을 비롯한 해외 상품에 대한 강력한 관세조치를 예고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빠른 종결, 반(反)하마스·친(親)이스라엘 중동정책, 동맹국 공동방위 의무 이행 요구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정책 기조는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강조하며

50) Judis and Teixeira, 앞의 글.

51) John Sides, “How to think about the “racial realignment” in U.S. politics,” *Good Authority*, Nov. 18, 2024.

52)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앞의 책, pp.4-7.

53) 황선주, 앞의 글.



해외 분쟁 등에 적극적인 군사개입을 요구했던 과거의 기조들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둘째, 경제·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먼저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전통적인 보수층의 입장과 달리 관세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의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 에너지 중심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키우고, 물가 상승 압박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부가 화석 에너지 의존에서 탈피하여 풍력, 태양력 등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내연기관 자동차로부터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에 반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LNG 등 미국의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수출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하고, 연방 부처와 의회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시도가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속적으로 연방 부처의 비대함과 비효율성, 그리고 각 부처가 갖고 있는 기관 독립성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트럼프 당선자는 연방 부처에 할당된 예산을 감축하여 재정적자의 규모를 줄이고자 하며, 연방준비제도(FED: Federal Reserve)의 운영에 있어서도 연방준비제도의 기관 독립성을 고수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sup>54)</sup> 트럼프 당선자는 내각 지명자들의 빠른 인준을 요구하며 의회를 압박하는 등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 왔는데, 지난 대통령 재임시절에는 의회의 결정을 우회하여 국경 장벽에 필요한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 긴급 명령권을 발동한 바 있다.<sup>55)</sup>

이 외에도 이민,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 있어서 트럼프의 새로운 행정부는 현격한 수준의 정책 전환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8년 전 내각 구성 당시에 트럼프는 워싱턴 정치의 ‘외부인’으로서 워싱턴 정치의 경험이 많은 ‘내부인’들을 다수 내각에 영입하고 나름의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이번 내각 구성에서는 본인과 의견을 뚜렷하게 같이하는 인사들을 기용할 것을 예고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당선 이후 빠른 속도로 내각의 주요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와 같은 트럼프의 정책 비전을 확고히 공유하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내각의 인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 2. 트럼프 제2기 내각의 주요 구성

트럼프 당선자는 2024년 11월 10일, 소셜미디어에 “때로는 (임명동의를 위한) 투표가

54) Benn Steil, and Elisabeth Harding, “How Trump Can Control the Fed”,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Nov. 18, 2024.

55) Charlie Savage, Maggie Haberman, and Jonathan Swan, “Trump Picks Key Figure in Project 2025 for Powerful Budget Role,” *The New York Times*, Nov. 22, 2024.

2년 넘게 걸릴 수 있다. 4년 전 (나의 임기 때) 그런 일들이 있었고, 난 다시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내각의 자리를 지금 바로 채워야한다!”고 포스팅하며,<sup>56)</sup> 휴회기 임명(recess appointments)을 요구하였다. 휴회기 임명은 크리스마스 휴가 등 의회의 휴회기에 행정부 관료, 대사, 연방사법부 판사 등을 임명하는 것으로, 이 시기에는 상원 청문회 없이 임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대통령이 활용하는 것이다.<sup>57)</sup> 휴회기 임명은 빌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이 139회,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이 171회 활용하였지만, 지금 트럼프 당선자와 같이 장관급 직책을 임명하는 데 활용한 적은 없었다.<sup>58)</sup>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인 존 툰(John Thune)은 최근의 인터뷰에서 휴회기 임명 또한 가능한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헌법상으로는 대통령이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상원의 휴회를 강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한 번도 그와 같은 권한이 활용된 적은 없었다.<sup>59)</sup> 현재까지 발표된 내각 인선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미국 간 외교, 군사 이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에는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플로리다 주 상원의원,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미국 폭스 뉴스(Fox News) 진행자, 마이클 왈츠(Michael Waltz) 플로리다 주 하원의원이 임명되었다. 중국, 이란, 베네주엘라 등에 강경한 입장을 표명해 온 루비오 지명자는<sup>60)</sup> 과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우크라이나의 편에 서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 교착상태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어떤 식으로든 전쟁이 끝나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sup>61)</sup>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1기 때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인해 여러 명이 사임했던 직책으로, 이번 임명은 철저히 본인에게 충성하는 인물들과 일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헤그세스 지명자와 왈츠 지명자는 트럼프 당선자보다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인물들로, 헤그세스는 2017년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것의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전쟁 범죄를 저지른 군인들에 대한 사면을 강력하게 요구한

56) Kate Sullivan, Manu Raju, and Sam Fossum, “Trump calls on GOP senators vying to be majority leader to agree to recess appointments”, *CNN*, Nov. 10, 2024.

57) Pamela C. Corley, “Avoiding Advice and Consent: Recess Appointments and Presidential Power”,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vol.36 no.4., 2006.

58) Stephen Groves, “What are recess appointments and how could Trump use them to fill his cabinet?”, *AP NEWS*, Nov. 15, 2024.

59) Jess Bravin, “Trump Wants to Use Recess Appointments to Fill His Cabinet. Here’s How.”, *The Wall Street Journal*, Nov. 25, 2024.

60) Michael Gold, “Marco Rubio Is Trump’s Pick for Secretary of State”, *The New York Times*, Nov. 13, 2024.

61) Vivian Salama, Alex Leary, and Alexander Ward, “Trump Expected to Nominate Rubio for Secretary of State, and Picks Waltz as National Security Adviser”, *The Wall Street Journal*, Nov. 12, 2014.

바 있다.<sup>62)</sup> 왈츠 지명자는 하원에서 “중국 태스크 포스(China Task Force)”를 주도하며 중국산 광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둘째, 경제 정책을 이끌 재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에는 투자회사 출신 인사들인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키스퀘어캐피탈(Key Square Capital) 창립자와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캔터 피츠제럴드(Cantor Fitzgerald) 대표가 임명되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자의 경제정책에 많은 자문을 해왔던 베센트 지명자는, 트럼프에게 “3-3-3 정책”(2028년까지 재정적자를 GDP 3% 규모로 축소, 탈규제를 통해 GDP 성장 3% 달성, 현재의 원유 생산량보다 하루 300만 배럴 더 생산)<sup>63)</sup>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64)</sup> 베센트 지명자는 감세와 함께 재정 적자를 줄일 것을 예고하는 한편 수입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세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중국에 대한 높은 관세를 예고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sup>65)</sup> 그러나 베센트 지명자는 트럼프 당선자의 경제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충격을 일정 부분 진정시킬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기도 하는데, 특히 관세의 도입이 미국 국내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sup>66)</sup>

셋째, 이민 정책과 관련된 국토안보부 장관과 국경 차르(Border Czar)<sup>67)</sup>에는 각각 크리스티 노엠(Kristi Noem)과 톰 호먼(Tom Homan)이 임명되었다.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1기 때 대통령과 많은 갈등을 겪으며 4번의 장관 교체가 있었던 부처로, 노엠 지명자는 사우스다코타 주 방위군을 미국-멕시코 국경에 파병했을 정도로 강경한 이민정책을 대표하는 인물이다.<sup>68)</sup> 국경 차르에 임명된 호먼 지명자는 트럼프 1기 때 이민세관집행국장(Director of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을 맡았던 인물로, 선거 이전부터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나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대규모 이민자 추방작전을

62) Brandon Friedman, “Trump’s secretary of defense pick is a wildly unqualified Fox News host”, *MSNBC*, Nov. 14, 2024.

63) 3-3-3 정책은 2010년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의 “세 개의 화살” 정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Peter Rudegeair, and Gregory Zuckerman, “Scott Bessent Sees a Coming ‘Global Economic Reordering.’ He Wants to Be Part of It.”, *The Wall Street Journal*, Nov. 24, 2024.

64) Gregory Zuckerman, and Peter Rudegeair, “The Ex-Soros Executive Who Is Trump’s New Obsession”, *The Wall Street Journal*, Oct. 10, 2024.

65) Gabe Whisnant, “Mike Waltz, China Hawk Reported to Become Trump’s National Security Adviser,” *Newsweek*, Nov. 11, 2024.; Andrew Restuccia, and Brian Schwartz, “Trump Picks Howard Lutnick as Commerce Secretary,” *The Wall Street Journal*, Nov. 19, 2024.

66) Alan Rappeport, and Maggie Haberman, “Trump Taps Investor Scott Bessent as Treasury Secretary,” *The New York Times*, Nov. 22, 2024.

67) 차르(Czar)는 미국 대통령들이 당장의 시급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임명하는 직책으로,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는 기후변화, 테러리즘 등의 이슈에 대해 거의 30명의 차르를 임명한 바 있다(Rachel Treisman, “What to know about Tom Homan, the former ICE head returning as Trump’s ‘border czar’,” *NPR*, Nov. 11, 2024. (최종 검색일: 2024. 11. 18.), <<https://www.npr.org/2024/11/11/nx-s1-5186522/tom-homan-border-czar-trump>>).

68) Andrew Restuccia, and Michelle Hackman, “Trump Picks Kristi Noem to Be Homeland Security Secretary,” *The Wall Street Journal*, Nov 12, 2024.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sup>69)</sup> 특히 호먼 지명자는 지난 2018년 논란이 되었던 미국-멕시코 국경의 “이민자 가족 분리 정책”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으로 시행된 해당 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폐기된 바 있다.

넷째, 에너지, 기후위기 관련 정책과 관련된 에너지부 장관, 내무부 장관, 환경보호청 장에는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더그 버검(Doug Burgum), 리 젤딘(Lee Zeldin)이 임명되었다. 라이트 지명자는 셰일가스 추출 전문기업 “리버티 에너지(Liberty Energy)”의 최고경영자로서, 화석연료의 강력한 지지자이자 기후위기 회의론자(Climate Skeptic)이다.<sup>70)</sup> 2024년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의 부통령 러닝메이트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버검 지명자는, 셰일가스 개발로부터 특수를 누린 노스다코타 주지사로 트럼프 당선자와 석유 재벌 후원자들을 연결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71)</sup> 라이트 지명자와 버검 지명자는 트럼프 당선자가 신설할 “국가에너지회의(National Energy Commission)”를 함께 이끌 예정으로, 트럼프 당선자가 예고했던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sup>72)</sup> 젤딘 지명자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불복했던 “충성파” 중의 한 명으로, 현재의 환경규제가 미국의 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트럼프 당선자의 지적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할 것으로 예상된다.<sup>73)</sup>

다섯째, 신설 예정인 정부혁신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장관에는 일론 머스크(Elon Musk)와 비벡 라마스와미(Vivek Ramaswamy)가 지명되었다. 아직 정부혁신부가 어떤 조직의 형태를 갖게 될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으나, 트럼프 당선자는 정부혁신부가 “정부의 바깥으로부터(from outside of government) 현재 연방 기관들의 과도한 규제를 없애고, 낭비하고 있는 예산규모를 축소하며 재편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sup>74)</sup> 머스크 지명자는 현재 6.75조 달러의 연방 예산에서 최소 2조 달러를 삭감하고, 현재 400개 이상인 연방정부 기관들의 숫자 또한 99개 이하로 줄이겠

69) Rachel Treisman, 앞의 글.

70) Benoit Morenne, and Collin Easton, “Trump’s Choice for Energy Secretary Is a Fracking Booster and Climate Skeptic,” *The Wall Street Journal*, Nov. 17, 2024.

71) Vivian Salama, and Alex Leary, “Trump Nominates North Dakota Gov. Doug Burgum as Interior Secretary,” *The Wall Street Journal*, Nov. 15, 2024.

72) Rebecca F. Elliott, “Trump’s ‘Drill, Baby, Drill’ Cuts Two Ways for Oil Companies,” *The New York Times*, Nov. 7, 2024.

73) Coral Davenport, and Lisa Friedman, “Trump Chooses Lee Zeldin to Run E.P.A. as He Plans to Gut Climate Rules,” *The New York Times*, Nov. 11, 2024.

74) Sarah Kessler, “What Can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 *The New York Times*, Nov. 16, 2024.



다고 말한 바 있다.<sup>75)</sup> 물론 현재로서는 부처의 위상과 역할이 불분명하기에 이와 같은 대규모 삭감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자가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위한 메디케어(Medicare)와 사회보장보험은 그대로 유지할 것을 표명하였고, 국방 예산 또한 지난 트럼프 1기 때처럼 오히려 더 늘릴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만약 삭감이 이루어진다면 65세 미만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icaid(Medicaid)와 교육 분야, 그리고 공무원 인원규모 등에서 큰 감축이 예상된다.

현재까지의 후보자 명단을 볼 때, 트럼프 당선자의 정책적 입장을 뚜렷하게 공유하고, 탄핵 심판 및 지난 2020년 선거 불복 과정 등에서 적극적으로 당선자를 옹호했던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내각의 구성은 지난 트럼프 정부 1기에서 다수의 부처장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고 나름의 제동을 걸었던 것과 달리, 이번 2기에서는 그와 같은 견제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주목할 부분은 지명자들의 상원 인준 여부인데, 실제로 법무부 장관 첫 지명자 맷 게이츠(Matt Gaetz)<sup>76)</sup>는 과거 미 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인해 상원 인준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사퇴했으며, 국방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 또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어 인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sup>77)</sup> 주목할 점은 상원에서 인준이 거부되었을 때, 트럼프 당선자가 더 온건하거나 도덕적으로 흠결이 덜한 인물을 임명할 것인지, 아니면 인준이 필요 없는 “임시직(interim)”의 형태를 활용할 것인지 여부이다. 현재 1998년 이래로 적용되고 있는 「연방정부 공석 개혁법」(The Federal Vacancies Reform Act: FVRA)에 따르면 상원의 인준을 받지 않고도 일정 조건 하에서 임시직의 형태로 720일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sup>78)</sup>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때에도 상원의 인준을 필요로 하는 많은 공직을 그대로 비워두거나 임시직을 임명하는 방법을 자주 활용하였고, 특히 역할을 축소하고 예산을 줄이고 싶어했던 부처(내무부와 노동부 등)의 장을 오랜 시간 임명하지 않고 비워둔 바 있다.<sup>79)</sup>

75) Madeleine Ngo, and David A. Fahrenthold, “Musk Wants to Slash \$2 Trillion in Federal Spending. Is That Possible?,” *The New York Times*, Nov. 16, 2024.

76) 플로리다 주 하원의원, 2024년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안 발의를 주도한 공화당 강경우파, 2024년 11월 22일 사퇴.

77) Peter Baker, Maggie Haberman, and Jonathan Swan, “Matt Gaetz Withdraws From Consideration for Attorney General,” *The New York Times*, Nov. 21, 2024.; Maggie Haberman, “Trump Stands by Defense Pick Who Says Encounter With Woman Was Not Sexual Assault,” *The New York Times*, Nov. 17, 2024.

78) Christina M. Kinane, “Control without Confirmation: The Politics of Vacancies in Presidential Appointment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115 no.2, 2021.

79) Christina M. Kinane, 위의 글.



| 표 1 | 트럼프 제2기 내각의 주요 구성

(단위: 기재)

직책	이름	주요 경력	비고
국무부 장관 (Secretary of State)	마르코 루비오 (Marco Rubio)	플로리다 주 상원의원, 2016년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	상원 동의 필요
법무부 장관 (Attorney General)	팸 본디 (Pam Bondi)	플로리다 주 법무장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재판 변호	상원 동의 필요
국방부 장관 (Secretary of Defense)	피트 헤그세스 (Pete Hegseth)	Fox News 진행자,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참전 경력	상원 동의 필요
국토안보부 장관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크리스티 노움 (Kristi Noem)	사우스 다코타 주지사, 주 방위군을 텍사스-멕시코 국경에 파병	상원 동의 필요
중앙정보국장 (C.I.A. Director)	존 랫클리프 (John Ratcliffe)	텍사스 주 하원의원, 트럼프 1기 정부 국가정보국장, 2019년 대통령 탄핵 재판 변호	상원 동의 필요
국가정보국장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털시 개버드 (Tulsi Gabbard)	하와이 주 하원의원, 현역 군인(중령), 민주당에서 탈당	상원 동의 필요
환경보호청장 (Administrator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리 젤딘 (Lee Zeldin)	뉴욕 주 하원의원, 2020년 대통령 선거결과 불복, 2019년 대통령 탄핵 재판 변호	상원 동의 필요
국제연합 대사 (U.N. Ambassador)	엘리스 스테파닉 <sup>†</sup> (Elise Stefanik)	뉴욕 주 하원의원, 공화당 하원 의원총회 의장, 2019년 대통령 탄핵 재판 변호	상원 동의 필요
보건복지부 장관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Robert F. Kennedy Jr.)	2024년 대선 출마, 환경 변호사, 백신 반대 활동가	상원 동의 필요
공공의료보험기관장 (Administrator of Medicare and Medicaid)	메흐멧 오즈 (Mehmet Oz)	의사, TV 쇼 진행, 트럼프 1기 Council on Sports, Fitness, Nutrition	상원 동의 필요
내무부 장관 (Secretary of Interior)	더그 버검 (Doug Burgum)	노스다코타 주지사, Great Plains Software CEO	상원 동의 필요
에너지부 장관 (Secretary of Energy)	크리스 라이트 (Chris Wright)	세일가스 추출 전문기업 리버티 에너지(Liberty Energy) CEO	상원 동의 필요
보훈부 장관 (Secretary of Veteran Affairs)	덕 콜린스 (Doug Collins)	조지아 주 하원의원, 2019년 대통령 탄핵 재판 변호	상원 동의 필요
재무부 장관 (Secretary of Treasury)	스콧 베센트 (Scott Bessent)	투자회사 Key Square Capital 창립자, 예일대학 경제사 겸임교수	상원 동의 필요

상무부 장관 (Secretary of Commerce)	하워드 러트닉 (Howard Lutnick)	투자회사 Cantor Fitzgerald CEO,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	상원 동의 필요
예산관리국장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러셀 보우트 (Russell T. Vought)	보수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Project 2025” 주도, 트럼프 1기 예산관리국장	상원 동의 필요
교통부 장관 (Secretary of Transportation)	손 더피 (Sean Duffy)	위스콘신 주 하원의원, Fox News 진행자	상원 동의 필요
교육부 장관 (Secretary of Education)	린다 맥마흔 (Linda McMahon)	WWE CEO, 코네티컷 주 교육위원. 트럼프 1기 중소기업청장	상원 동의 필요
나토 주재 대사 (NATO Ambassador)	매슈 휘테커 (Matthew G. Whitaker)	트럼프 1기 법무부 장관 대행, 검사 출신	상원 동의 필요
백악관 비서실장 (Chief of Staff)	수지 와일스 (Susie Wiles)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정치자금기부단체 “Save America PAC” CEO	동의 절차 필요하지 않음
국경 차르 (Border Czar)	툼 호먼 (Tom Homan)	트럼프 1기 이민세관집행국장	동의 절차 필요하지 않음
국가안보보좌관 (National Security Adviser)	마이클 왈츠 <sup>†</sup> (Michael Waltz)	플로리다 주 하원의원 (외교위원회, 국방위원회), 특수작전부대원 출신	동의 절차 필요하지 않음
정부효율부 장관 (Secretary of Government Efficiency)	일론 머스크 (Elon Musk)	Tesla, Space X CEO	부처 신설 절차 혹은 별도의 직위 부여 가능성 있음
	비벡 라마스와미 (Vivek Ramaswamy)	제약회사 Roivant Sciences CEO, 2024년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	

※ 주: 2024년 11월 25일까지 발표된 명단 기준. † 표시는 이번 하원의원선거 당선자임

※ 자료: The New York Times, (최종 검색일: 2024. 11. 25.)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4/us/politics/trump-administration-cabinet-appointees.html>>; The Wall Street Journal <[https://www.wsj.com/politics/elections/trump-cabinet-picks-administration-2025-9f9a5c5b?mod=series\\_trumptransition](https://www.wsj.com/politics/elections/trump-cabinet-picks-administration-2025-9f9a5c5b?mod=series_trumptransition)>

## V. 요약 및 함의

2024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경합주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선거인단 312표를 확보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상·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며 ‘완승’을 거두었다. 본 연구는 2024년 미국 대통령·의회선거의 과정과 결과를 분석했으며, 이를 통해 살펴본 선거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후보가 승리했다는 점은 투표율 상승이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기존의 통념을 깨뜨렸다고 볼 수 있다. 63.86%의 투표율은 지난 100년 간의 대선과 비교했을 때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특히 경합주의 투표율이 2020년과 비슷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한 도시지역의 투표율이 하락한 것이 해리스 후보의 패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번 선거에서 핵심 쟁점은 경제와 이민 문제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실적은 지표상으로 나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경제에 대한 민주당 정부의 책임론이 부각되었다. 또한, 경제 문제와 함께 이민자 유입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문제가 쟁점화되었는데, 민주주의의 위기나 낙태와 같은 이슈는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었다. 이는 이번 선거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치관이나 제도적 문제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셋째, 미국 정당정치의 균열 구조 변화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후보의 득표 확대가 미국 정당 경쟁 구도의 지형 변화를 보여주는 조짐이라는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 공화당이 유색인종과 저학력 집단, 젊은 층으로 지지를 확대하며 지지기반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이것이 균열 구조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구조적 전환인지는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넷째, 신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기조로 하는 국경 봉쇄와 이민자 추방, 관세부과를 통한 자국 산업 보호,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각 구성에서도 트럼프와 견해를 같이하는 인사들이 중용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신속하고 일관적인 정책 추진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이나, 인준 과정 등에서 의회와 갈등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하원 다수당의 의석 우위가 매우 적어서 대통령 의제의 입법화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2024년 미국 선거는 유권자들의 경제적 불만이 여당에 대한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과 방향성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함께,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지지구조의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정당 지지연합에 구조적인 전환이 일어난 ‘재정렬’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 황선주, 「2024년 美대선,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비교」, 『이슈와 논점』 제2281호, 2024.
- \* ABC News, "Here's where the 2024 presidential candidates stand on LGBTQ+ issues," Sep. 6, 2024.
- \* Abutaleb, Yasmeen, Dan Keating, Sabrina Rodriguez and Josh Dawsey, "Trump coalition marks a transformed Republican Party," The Washington Post, Nov. 6, 2024.
- \* Alfonseca, Kiara, "Election fact check: Trump, Harris on transgender issues," ABC News, Nov. 1, 2024.
- \* Andrew Prokop, "Biden screwed up on inflation — badly," Vox, Nov. 19, 2024.
- \* Baker, Peter, Maggie Haberman, and Jonathan Swan, "Matt Gaetz Withdraws From Consideration for Attorney General," The New York Times, Nov. 21, 2024.
- \* Bender, Michael C., Katie Glueck, Ruth Igielnik, and Jennifer Medina, "In Trump's Win, G.O.P. Sees Signs of a Game-Changing New Coalition," The New York Times, Nov. 6, 2024.
- \* Blake, Aaron, "Trump and the GOP will have a historically tiny House majority. What that means." The Washington Post, Dec. 4, 2024.
- \* Bravin, Jess, "Trump Wants to Use Recess Appointments to Fill His Cabinet. Here's How," The Wall Street Journal, Nov. 25, 2024.
- \* Brenan, Megan, "Economy Most Important Issue to 2024 Presidential Vote," Gallup News, Oct. 9, 2024.
- \* Brooks, David, "Voters to Elites: Do You See Me Now?" The New York Times, Nov. 6, 2024.
- \* Burn-Murdoch, John, "Democrats join 2024's graveyard of incumbents," Financial Times, Nov. 7, 2024.
- \* Corley, Pamela C., "Avoiding Advice and Consent: Recess Appointments and Presidential Power,"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vol.36 no.4., 2006.
- \* Davenport, Coral, and Lisa Friedman, "Trump Chooses Lee Zeldin to Run E.P.A. as He Plans to Gut Climate Rules," The New York Times, Nov. 11, 2024.
- \*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24 Democratic Party Platform, 2024.
- \*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DNC Releases 2024 Party Platform to be Voted on at Convention," Aug. 18, 2024.
- \* DeSilver, Drew, "Narrow majorities in U.S. House have become more common but haven't always led to gridlock," Pew Research Center, May 5, 2023.
- \* Doherty, Carroll, Jocelyn Kiley, and Nida Asheer, In Tied Presidential Race, Harris and Trump Have Contrasting Strengths, Weaknesses, Pew Research Center, 2024.

- \* Doherty, Carroll, Jocelyn Kiley, Nida Asheer, Calvin Jordan, Election 2020: Voters Are Highly Engaged, but Nearly Half Expect To Have Difficulties Voting, Pew Research Center, 2020.
- \* Elliott, Rebecca F., “Trump’s ‘Drill, Baby, Drill’ Cuts Two Ways for Oil Companies,” The New York Times, Nov. 7, 2024.
- \* Fedor, Lauren, Stefania Palma and James Politi, “Gaetz failure suggests Senate Republicans may resist Trump extremes,” Financial Times, Nov. 23, 2024.
- \* Friedman, Brandon, “Trump’s secretary of defense pick is a wildly unqualified Fox News host,” MSNBC, Nov. 14, 2024.
- \* Gambino, Lauren. “Where do Harris and Trump stand on the key election issues?,” The Guardian, Nov. 3, 2024.
- \* Geoghegan, Tom, “What would Harris and Trump do in power?,” BBC, Nov. 3, 2024.
- \* Gold, Michael, “Marco Rubio Is Trump’s Pick for Secretary of State,” The New York Times, Nov. 13, 2024.
- \* Groves, Stephen, “What are recess appointments and how could Trump use them to fill his cabinet?,” AP NEWS, Nov. 15, 2024.
- \* Harris, Paul, “Republicans fear long exile in the wilderness,” The Guardian, 26 Oct. 2008.
- \* Judis, John B. and Ruy Teixeira, “Trump Called His Win a ‘Historic Realignment’ of U.S. Politics. We Have Our Doubts,” The New York Times, Nov. 13, 2024.
- \* Kessler, Sarah, “What Can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 The New York Times, Nov. 16, 2024.
- \* Kinane, Christina M., “Control without Confirmation: The Politics of Vacancies in Presidential Appointment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115 no.2, 2021.
- \* Luhby, Tami, and Katie Lobosco, “Here’s what Harris and Trump are proposing for the economy,” CNN, Oct. 28, 2024.
- \* Morenne, Benoit, and Collin Easton, “Trump’s Choice for Energy Secretary Is a Fracking Booster and Climate Skeptic,” The Wall Street Journal, Nov. 17, 2024.
- \* Morrow, Darvion, “Trump Won With the Most Diverse GOP Coalition Since the Civil Rights Act,” Newsweek, Nov. 6, 2024.
- \* Mukherjee, Sahana, and Jens Manuel Krogstad, “Trump and Harris Supporters Differ on Mass Deportations but Favor Border Security, High-Skilled Immigration,” Pew Research Center, Sep. 27, 2024.



- \* Ngo, Madeleine, and David A. Fahrenthold, “Musk Wants to Slash \$2 Trillion in Federal Spending. Is That Possible?,” *The New York Times*, Nov. 16, 2024.
- \* Nicholls, Flynn, “Donald Trump’s Victory Speech in Full: Transcript,” *Newsweek*, Nov. 6, 2024.
- \* Quinn, Melissa, Caitlin Yilek, Caroline Linton, Kaia Hubbard, Kathryn Watson, Mary Cunningham, and Aimee Picchi, “Kamala Harris’ policy plans and platform on key issues for the 2024 election,” *CBS NEWS*, Nov. 5, 2024.
- \* Rappeport, Alan, and Maggie Haberman, “Trump Taps Investor Scott Bessent as Treasury Secretary,” *The New York Times*, Nov. 22, 2024.
- \*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The 2024 Republican Platform Make America Great Again!*, 2024.
- \* Restuccia, Andrew, and Michelle Hackman, “Trump Picks Kristi Noem to Be Homeland Security Secretary,” *The Wall Street Journal*, Nov. 12, 2024.
- \* Riccardi, Nicholas, “Big voter turnout this year benefited Republicans, contradicting conventional political wisdom,” *AP News*, Nov. 18, 2024.
- \* Rudegear, Peter, and Gregory Zuckerman, “Scott Bessent Sees a Coming ‘Global Economic Reordering.’ He Wants to Be Part of It,” *The Wall Street Journal*, Nov. 24, 2024.
- \* Sacchetti, Maria, Anthony J. Rivera, Abbie Cheeseman, and Justine McDaniel. “Harris vs. Trump on immigration: Where they stand on the issue,” *The Washington Post*, Sep. 10, 2024.
- \* Salama, Vivian, Alex Leary, and Alexander Ward, “Trump Expected to Nominate Rubio for Secretary of State, and Picks Waltz as National Security Adviser,” *The Wall Street Journal*, Nov. 12, 2014.
- \* Salama, Vivian, and Alex Leary, “Trump Nominates North Dakota Gov. Doug Burgum as Interior Secretary,” *The Wall Street Journal*, Nov. 15, 2024.
- \* Savage, Charlie, Maggie Haberman, and Jonathan Swan, “Trump Picks Key Figure in Project 2025 for Powerful Budget Role,” *The New York Times*, Nov. 22, 2024.
- \* Shoichet, Catherine E., “A little-known law from 1798 could be a key part of Trump’s deportation plans,” *CNN*, Nov. 14, 2024.
- \* Sides, John, “How to think about the “racial realignment” in U.S. politics,” *Good Authority*, Nov. 18, 2024.
- \* Steil, Benn, and Elisabeth Harding, “How Trump Can Control the Fed,”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Nov. 18, 2024.
- \* Sullivan, Kate, Manu Raju, and Sam Fossom, “Trump calls on GOP senators vying to be majority leader to agree to recess appointments,” *CNN*, Nov. 10, 2024.



- \* Treisman, Rachel, "What to know about Tom Homan, the former ICE head returning as Trump's 'border czar'," NPR, Nov. 11, 2024.
- \* Whisnant, Gabe, "Mike Waltz, China Hawk Reported to Become Trump's National Security Adviser," Newsweek, Nov. 11, 2024.
- \* Zuckerman, Gregory, and Peter Rudegeair, "The Ex-Soros Executive Who Is Trump's New Obsession," The Wall Street Journal, Oct. 10, 2024.

## R E P O R T · L I S T

## NARS 현안분석 발간 일람

호수	제목	발간일	집필진
제336호	피의자·피고인 사망과 진실규명	2024.12.13.	이소영
제335호	다크패턴으로부터 온라인 이용자 보호	2024.12.5.	박소영
제334호	대한민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이행 평가와 과제 - 북방정책과 행정부의 외교·국방 정책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부재-	2024.11.29.	정민정
제333호	노숙인 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주거·의료·고용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2024.11.27.	정용제
제332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체계 구축 방안	2024.10.23.	김은정
제331호	사이버렉카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24.10.21.	최진응
제330호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부담 전망과 과제 - 2025~2028년 AI 디지털교과서 구축료 재정요를 중심으로 -	2024.10.17.	김범주
제329호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하지 못하는 이유 - 청소년쉼터 입소 절차 입법개선 시급 -	2024.10.7.	허민숙
제328호	인구감소지역 복수주소제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	2024.9.23.	하혜영
제327호	학생의 정신건강 실태와 향후 과제 -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19~2023년)」 수립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	2024.9.4.	김범주
제326호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성격과 입법 과제 - AI 디지털교과서는 어떻게 “교과용 도서”가 되었나 -	2024.8.20.	김범주
제325호	금융투자소득세 쟁점과 개선과제 - 주식의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논의를 중심으로-	2024.7.24.	이예지
제324호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 국적제도의 세계적 추세와 유사 국가 입법례를 중심으로 -	2024.6.28.	김보람
제323호	2023년 전세금반환보증제도 개편의 효과와 향후 임차인 보호방안	2024.6.24.	장경석
제322호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폭력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 - 강압적 통제 행위 범죄화를 위한 입법과제 -	2024.6.4.	허민숙
제321호	남북한 공유하천 이용·관리를 위한 남북 협력 방향	2024.5.29.	정민정·심성은
제320호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등을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과제	2024.5.16.	김은정



# NARS 현안분석 제337호

## 2024년 미국 대통령·의회선거 분석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02-6788-4510

발간등록번호 31-9735006-001612-14  
ISSN 2586-565X

